



생전의 공옥진 선생 모습과 공옥진 기념관. 전시실에는 선생의 생애와 예술 활동을 소개하는 유품과 자료들이 전시돼 있다.

삶 곳곳에 배어있는 예술의 혼...쉬엄쉬엄 즐겨볼까

남도 체험로드-영광 컬처

1인 창무극 창시자인 '공옥진 기념관'
절절한 몸짓에 담긴 예인의 숨결 느껴져

조용한 마을 한켠에 자리한 '작은미술관'
풍경 속 액자 같은 생활 밀착형 전시관

영광 유일 사립미술관인 '하원미술관'
바다 앞 통창 통해 물멍하며 전시 관람도

◇몸짓으로 남긴 예인의 혼, 공옥진 기념관= 고요한 영광 교촌리 마을에 소박한 기와집 한 채가 있다. '영광 예술연수소'라 불리는 이곳은 대한민국 판소리 명창이자 민속 무용가, 1인 창무극의 창시자 공옥진 선생이 살던 집이다. 담장 너머 흰 벽에 적힌 '공옥진 기념관' 글씨가 예인의 숨결을 증언한다.

공옥진(1933~2012)은 사람 냄새 나는 예인으로 불렸다. 판소리와 창극, 재담과 민속무용을 한 무대에 융합한 창무극은 그녀만의 독창적 예술이었다. 병신춤, 갑사춤, 동물춤이라 불린 몸짓에는 세상을 향한 해학과 연민이 깃들여 있었다. 단순한 흥내가 아니라 고통과 슬픔, 그리고 웃음을 예술로 승화시킨 울림이었다.

그녀의 삶은 순탄치 않았다. 명창 공대일의 딸로 태어나 어린 시절 일본 무용단에 보내지며 춤을 배웠고, 결혼 실패와 수도생활을 거치며 외로움과 시련을 겪었다. 하지만 그 고단한 삶은 결국 해학과 몸짓으로 무대에 살아났다. 1970년대 영광에 정착해 오로지 '옥진관'을 열고, 절친-예인들과 어울리며 춤추던 경험에 훗날 창무극의 밑거름이 되었다.

1978년 서울 무대에서 심청가의 맹인잔치 장면으로 관객을 사로잡은 뒤, 그녀의 공연은 세계로 뻗어갔다. 카네기홀, 런던 국제예술제, 세종문화회관까지 무대를 누볐고, 2010년 국립극장에서 뇌졸중을 이겨내며 마지막 무대에 선 장면은 전설처럼 남았다. 그러나 제도권 안에서 전수자를 남기지 못한 채, 2012년 영광에서 생을 마감했다.

현재 기념관은 화려하지 않다. 선생이 쓰던 공연복



백수해안도로에 자리한 하원미술관 전시관.

과 유품, 공연 대본과 VHS 자료가 조용히 놓여 있을 뿐이다. 그 소박한 전시는 오히려 예인의 삶처럼 투박하지만 진심이 묻어난다. 방문객들은 "우리 누나가 여기서 춤을 배웠다"거나 "어릴 적 공연을 본 기억이 있다"고 회상하며, 그녀의 예술을 자신들의 기억 속에서 되살린다.

공옥진의 예술은 끝내 전수자를 찾지 못한 채 기록으로만 남았지만 무대는 그녀에게 삶을 올리는 자리였고, 춤은 세상과 소통하는 언어였다. 오늘날 영광예술연수소는 한 시대를 살다 간 예인을 기억하는 공간이자 해학과 눈물이 공존했던 무대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조용한 기념비가 되고 있다.

◇길 건너 문득 만나는 작은미술관= 바닷물이 빠진 갯벌 옆, 투명한 유리 컨테이너 속에 그림이 걸려 있다. 어촌마을 풍경 속에서 만나는 미술관은 낯설지만 신선하다. 영광군이 지난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작은미술관'은 백수해안도로, 법성포, 염산 등 네 곳에 조성된 생활밀착형 전시관이다.

영광의 작은미술관은 관람료도 개관 시간도 없다. 그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면 된다. 전시장이라기보다 풍경 속 액자 같은 이 공간은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언제나 열려 있다.

작은미술관은 각 마을의 특색을 담아낸다. 법성포 뉴타운 미술관에서는 단오제를 주제로 한 사진전이 열려 파시와 국악경연대회 등 향구마을의 역사를 보여줬다. 같은 공간에서는 사진작가 정성훈의 개인전이 이어졌다. 창을 매개로 한 작품은 "내 마음의 창을 열어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관람객의 시선을 붙들었다.

백수 작은미술관은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의 서예전, 사진작가 강철의 조류 사진전 등 지역성이 짙은 전시를 선보였다. 글씨와 사진에는 노을과 새, 사라져가는 풍경이 고스란히 담겼다. 염산에서는 초등학생 다섯 명의 그림전이 열렸다. 아이들이 색으로 표현한 감정은 시골 마을의 작은 전시관을 가장 빛나는 무대로 바꿔놓았다.

아직 전문 큐레이터의 손길은 미치지 못했지만 작품 대부분은 영광에서 살아가는 주민과 작가들의 손에서 나왔다. 일상의 흔적

이 전시로 이어지고 지역 축제와 풍경이 주제가 된다.

영광군은 내년부터 예산을 확대해 청년·지역 작가전과 세계 명화전까지 기획전을 확대할 계획이다. 관람 환경 개선도 병행한다. 중요한 것은 이 공간이 일회성이 아닌, 지역에 스며드는 문화 인프라로 자리 잡는 일이다.

갯벌 옆 유리관에서 해풍을 맞으며 작품을 바라보는 경험. 완성형 미술관이 아니어도, 존재 자체로 이미 의미가 있다. 작은미술관은 일상 속 예술을 꿈꾸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영광의 문화예술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커피향 즐기며 예술명, 바다명 '하원미술관 & 카페'= 백수해안도로를 달리다 보면 바다와 맞닿은 카페들이 늘어서 있다. 그중 '하원미술관'은 단순한 뷰 맛집이 아니다. 갤러리·카페·펜션을 아우른 복합문화공간으로 예술과 휴식이 어우러지는 라운지다.

운영자 김화순 대표는 영광 우도농악 이수자이자 서예가다. 지역 예술인들과의 교류에서 출발한 이 공간은 영광 유일의 사립미술관으로 등록돼 있으며 매달 초대전을 연다. 광주·서울 작가에서 지역 아마추어 작가까지 폭넓게 전시가 이어지고 있다.

미술관은 1층, 3층은 카페다. 커피 한 잔 값으로 작품 감상까지 가능한 셈. 바다를 정면으로 마주한 카페 통창 앞 좌석은 '바다명' 명당으로 꼽힌다. 카페 역시 전시 공간으로 활용돼 수채화가 유명옥의 상설 작품이 은은한 분위기를 더한다.

김 대표는 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드립 커피를 내린다. "강북음 에스프레소와 달리 중북음 드립은 고소하고 깔끔한 맛을 살린다"며 "순남들이 맛있다고 말해줄 때 가장 보람 있다"고 했다. 오미자차 등 간단한 음료도 준비돼 있다.

하원미술관은 작가들의 열린 창작실이기도 하다. 바로 옆 컨테이너는 주말마다 직장인 작가의 작업실로 제공되고 김 대표 자신도 손님이 없는 시간엔 서예 연습을 이어간다. 서자·사신 등 여러 동호회 활동도 병행한다.

뷰에 반해서 다시 찾아가게 된다는 갤러리 카페 '하원미술관'. 노을이 붉게 물드는 시간이면 카페 통유리창은 예술보다 더한 예술이 된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휴무일은 없다.

/이보람·김창원 기자 bora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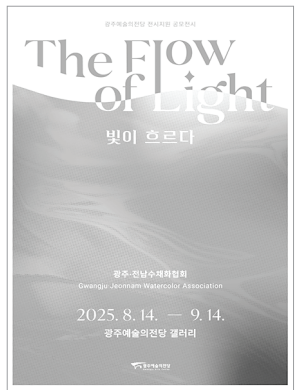
/사진=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법성포구에 자리한 작은미술관. 바닷바람이 부는 풍경 속에서 미술관을 만난다는 건 낯선 경험이다.

즐거운

문화
산책



GAC 전시지원 공모전시
광주·전남수채화협회 : 빛이 흐른다
일시 : 2025-08-14(목) ~ 2025-09-14(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제7회 GAC 공연예술축제 그라제 광주시립교향악단 398회 정기연주회
'The Echo of Peace'
일시 : 2025-09-12(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

